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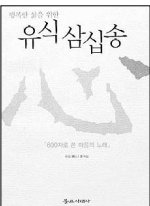
삶의 진면목 마음에 있으니...



성윤갑 관세청장
유식학 해설서 출간

지난 6월 취임한 성윤갑(50·사진) 관세청장. 1975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증권 관세청에서 근무해 내부승진으로 청장의 자리에 오른 '전문 관세 행정인'이다. 그러나 '청렴'을 제 1의 덕목으로 꼽는 성 청장이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 청장의 불교 인연은 이종사촌 동생인 전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 스님(정선 달성사 주지)의 출가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등학교생이던 사촌 동생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 성 청장은 이후 불교 교리를 꾸준히 공부해 1994년 <금강경> 해설서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려야지 왜 메고 가나>를 펴냈고, '화엄교화에 나타난 유식사상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유식학 해설서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삼십송>을 출간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 30송
성윤갑 저음 불교시대사 1만2천원

5세기 인도 불교학자 반수반두(婆修槃頭)가 지은 <유식삼십송>은 마음의 구조와 기능, 작용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등 유식사상의 정수를 30개의 시송(詩頌)으로 체계화한 책이다. 불교의 인식이론을 이해하는 필독서로 꼽히는 <유식삼십송>은 우리가 본래 타고날 때부터 있어왔던 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나 이외의 것'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여의어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참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유식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뿐 아니라 실천 수행적인 면을 강조해 마음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바르게 쓰기 위한 수행의 단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식삼십송>은 단지 불교의 한 부분으로서의 유식사상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틀 지워진 교리나 사상을 초월해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마음현상을 파헤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종교정신이 무엇인지, 종교를 믿지 않는 생활인이라면 '삶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식삼십송>의 원문을 해석한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전문적인 고증이나 사료 연구보다는 일반인들이 유식사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유식삼십송>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성 청장은 "이 책은 주제자로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제마저도 벗어 던지는 대자유와 해탈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지도"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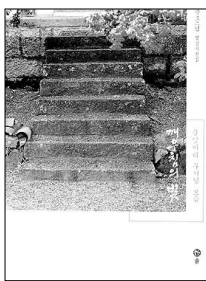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체신(箕城扶新)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려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들은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안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빛이 엮은 깨달음의 순간



깨우침의 빛
관조 스님 글/사진 | 술 | 2만5천원

합장하듯 두 꽃잎을 모아 쥐고 있는 연꽃. 이슬방울 머금은 연꽃을 보며 관조 스님은 수행자의 발원을 떠올린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습니다."

차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빛들,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흩날리는 꽃잎, 빗꽃이 내려 앉은 장독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서 있는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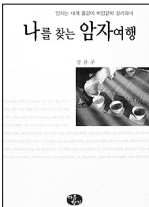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사찰과 자연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온 관조 스님이 쉽게 스쳐가기 쉬운 순간들을 찍은 명상

계절별 풍경 사진 85장 '법구경' 등 경전 구절과 조화 자연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 담아

사진집 <깨우침의 빛>을 펴냈다. '풀잎마다 부처님 모습'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스님은 자신의 범명처럼 대상을 깊이 관조(觀照)함으로써 '나뭇잎 하나, 돌맹이 하나에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이고, 부처 아닌 것은 인간인 이 산승(山僧) 밖에 없습니다. 오래 전에 집을 나선 산승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러한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의 그 어느 것이나 다 부처의 법신이라는 말씀과 숨결을 사진에 담으려 했습니다."

때문에 스님의 사진에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 '풍경 안쪽의 풍경'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사진집도 자연의 풍경에 <법구경> <백암록> <선가귀감> <숫타니파타> 등에서 발췌한 글들을 더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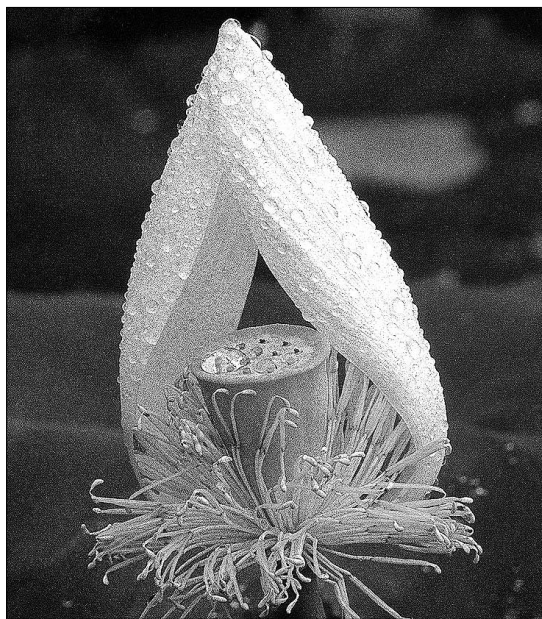
나를 찾는 암자여행
정찬주 저음 마음항기 1만2천원

쉬어가고 싶은 그곳, 암자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등의 책을 펴낸 '암자 전문가' 정찬주씨가 10여 년간의 '암자여행'을 회향하는 책 <나를 찾는 암자여행>을 펴냈다. 기존의 책들이 암자 소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책에서는 풍부한 사진을 통해 사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쌍봉사 근처에 '이불재'라는 집을 짓고 농사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지은이는 책에서 소비적인 여행 대신 암자 기행을 통해 나를 한 번 돌아볼 것을 권한다.

"여행의 길손들이 암자를 찾는 것은 우리 문화나 역사의 흔적을 보고자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우리는, 혹은 나는 누구인가'



사진을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관조 스님은 꽃잎을 모아 만든 연꽃에서 합장한 수행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대나무 통을 따라 흘러가는 약수를 보고는 '참된 영원은 끝없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는 가르침을, 한 장의 낙엽에서는 '어리석은 이는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어 참된 진리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모두 85장의 사진을 계절별로 나누어 실었다.

"글을 몰랐던 육조 혜능 스님을 단박에 깨우치게 한 말씀은 '응무소주 이기생심(應無所住 以生其心,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은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잡아채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목탁 대신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과 절을 찍어온 관조 스님. 1977년부터 30여 년간 10여 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했고 <승가>(1980) <열반>(1984) <한글자 빛>(1998) <사찰꽃살문>(2003) 등 15권의 작품집을 낸 관조 스님에게 사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수행의 길이자 포교의 한 방편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모님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부모은중경
월운 스님 옮김 | 지영사 | 8천원

"어머니가 그대 낳던 날 오장(五臟)은 온통 찢기었나니 몸도 마음도 까무러치고 흘러내린 피가 도살장 같았다. 그리고도 아기 건 강하던 말 듣고 기뻐함이 평시(平時)의 굶이나 된다." (<부모은중경> 중)

지나고 나서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님 은혜다. 뒤늦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자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 슬픔을 일컫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은 이 세상 모든 자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님 은혜는 무엇이고 이를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부모의 깊은 은혜를 묻는 제자들에게 '벉' 속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날으실 때 고생하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 '자식들을 위해 닳은 옷을 입으신 은혜' 등 10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효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를 위해 <부모은중경>을 읽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삼보에 공양하고, 재계(齋戒)를 지키고, 보시하고 복을 닦으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한 아들딸이라 하겠지만 이러한 행을 따지 않으면 자육의 시구가 될 것이다."

<부모은중경>은 부처님이 부모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일러준 '효 지침서'로, 이를 월운 스님(중국대역경원장이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옮겼다. 지난 2001년 발간된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에 실렸던 것을 좀 더 쉽게 다듬은 것으로, 월운 스님이 경전을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필 옹주사관 <부모은중경> 목판화를 실어 경의 이해를 돕는다.

스님은 "<부모은중경>은 불교적인 효를 가장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전"이라며 "독자들도 이 경전을 읽고, 쓰고, 펴냄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수필 옹주사관 <부모은중경> 목판화 일부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지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간대산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원 선사님께서 평안중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사회예술 분야	역경영리·풍수 분야
한문서예 1/2/3/4 한글서예·사군자 수묵화·문인화 채색화·현대채색화	사주와 심리학1/2·기문둔갑 실전사주명리학 초급·중급 연구 풍수지리학 형기론/이기론 복서육효학·육임학 초급/중급 정통점성술·자미두수
자연치유 분야	불교예술 분야
한방과 사주학 입문/연구 비전한방론·실전치유기공 실전스포츠타사지·요가 실전교정요법(학) 청소년 상담·오행석시요법	불교초교리 대승불교 교리와 불교 문화예술 사찰기초의식·법파실기 불교무용·진도복춤 불화단청 실기
외국어 분야	특별과정
중국어 회화 1/2 일본어 회화 한자교육 지도사	·명리학 최고 전문가 과정 ·실전사주명리학 특별수성 ·불교 교직자 특별과정 ·민화전재 전문인 과정

모집 안내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6.27~8.26
▷ 수강대상: 일반성인 남·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총 16주)
▷ 재출시유: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룩내용

종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중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기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피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